

科學技術 振興에 對한 座談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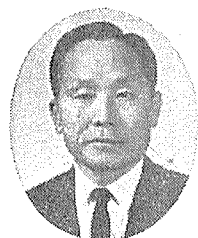
〈參席者〉 金 基 衡 (科學 科 術 處 長 官)
 金 允 基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會長)
 金 東 一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副會長)

日 時 : 1968. 3. 2 (午後 7時 30分)

場 所 : 大韓民國中央放送局(K. B. S)

<오늘 이 時間에는 韓國科學技術에 對해서 科學技術處長官 金基衡博士,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會長 金允基博士 그리고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副會長 金東一博士 세분의 座談을 보내 드립니다.>

會長 우리나라가 지금 高度에 經濟成長을 하고 있고 또 繼續해서 高度에 成長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勿論 科學技術 振興을 해야되고 또 科學技術 振興없이 안된다는 것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昨年에는 말이죠, 宇宙開發 時代라고 할까요?

金基衡 長官님은 科學技術處에서 科學技術 長期展望을 最近에 20年 計劃으로 내 세웠지요. 우리나라는 昨年에 科學技術處가 생겨서 長官님으로 金基衡博士를 모셨고 또 最近에 原子力發電所도 만들었다는 좋은 消息도 들리는데…… 먼저 科學技術處長官님께서 科學技術 振興에 對해서 政策的으로 말씀드릴 수 없을까요.

全般的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長官 지난 67年度는 科學技術을 振興하기 爲한 터전을 마련한 해였고, 今年 68年度는 科學技術 振興을 躍進시키는 해로 定했습니다.

昨年에는 豫算을 約 13억밖에 활용 못했는데 今年에는 32억 6천만원을 配定받았습니다.

會長 약 3倍가 되는군요.

長官 네, 正確하게 2, 4倍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政府가 財政에 困難한 중에도 躍進하는 土臺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今年에는 大대체 어떠한 政策으로 움직일 것인가, 이러한 것을 大體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科學技術이 進步가 相當히 國際的으로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갈수록 앞을 멀리 내다보고 計劃을 세우지 않으면 시행 착오나 非能率的인 그 投資를 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 科學技術處로서는 앞으로 長期計劃을 세워서 이런 計劃은 5年을 準備計劃으로 規定하고 20년쯤은 앞을 내다보고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目標로서는 한 20년쯤되면 特殊分野는 우리가 先鋒적으로, 이걸 꼭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결정한 분야며 우리가 決定한 이 분야는 世界一流水準에 到達될 것이고 그外에 日本, 中國, 中進國의 水準에 到達하는 長期目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탄하고 長期目標을 뒷받침하기 爲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가 가장 원하고 있는 人的 資源, 그 人力을 動員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資源을 開發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頭腦를 開發 研究할 수 있는 環境을 助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外에 世界的인 研究所를 지금 흥행에 짓고 있습니다마는 科學技術 研究所를 完成해서 産業開發의 基幹 要員을 만들 것이고 또 國際協力을 強化해서 世界各國



<放送座談 光景>

이가지고 있는 技術을 하루 速히 大量으로 輸入해가지고 消化해서 우리나라 發展의 原動力으로 삼을 작정입니다.

이러한 題目을 대강 가지고………,

그러면 그 內幕으로는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을 약간 團體別로, 項目別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작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比較的 이렇게 資源은 적고 人口는 많고 技術으로는 後進하고 있는데 先進國을 따라 갈수 있느냐 하는 그 기점입니다. 自身이 있는가 하는 그 이야기인데 이걸 우리가 長期計劃을 세우고 일을 시작하기 前에 우선 反省을 해야 할 必要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自身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따라 갈수 있습니다.

그 理由로서 첫째는 우리가 解放以後 敎育을 많이 해 왔습니다. 어떤면에서 비效率의인 면도 있었지만 여하튼간에 우리는 東洋에 있어서는 日本 다음가는 高度의 敎育國家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人口가 總人口로 보아서 3천만이고 이것이 全部 統一된 단일 민족입니다.

印度 같은 나라를 보면은 그 나라에 數百種의 人種이 있어가지고 言語도 잘 通하지 않아 그 後進性을 탈각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中央政府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이런 意味에서는 우리가 참 多幸입니다. 다음에는 옆에 있는 日本

나라가 벌써 模範을 보였습니다마는 技術적으로 뒤떨어진 나라가 先進國을 따라 간다는 것은 速度가 빠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機械를 사왔을 때 그 機械를 發展시키는데는 先進國의 數十年이라는 世月을 消費했지만 우리는 그 先進國의 機械를 갖다가 당장에 돌리면은 世界에서 가장 最新式機械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 機械를, 또 技術을 消化할수 있는 能力만 있으면은 後進國이 先進國을 模倣해서 따라 가는데 그 長點이 많다는 그러한 利點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무리 技術이 있어도 市內에서, 工場에서 써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마는 多幸이도 우리가 제1차 경제개발을 성공했고 제2차 경제계획도 順調로이 進行중에 있어서 여기서 방대한 技術이 需要가 생겼습니다.

이제 옛날에 技術者가 實業者로 놓고 있다는 그런 형편은 지나가는 형태가 생겨서 技術은 배울수록 늘고 또 外國에서 들어오는 대로 살일수 있는 이러한 始作이 마련 되었다는 것이며, 特히 根本적으로 重要한 것은 우리國民이 남처럼 貧困에서 벗어나 가지고 좀 잘 살아 보겠다는 굳건한 意志가 있고 또 우리 政府가 率先해서 그러한 體制, 行政體制, 科學技術處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또 위에서는 大統領閣下께

서 直接 技術 開發에 先頭를 내고 있는 이런 體制下에서 우리는 반드시 科學國家가 되고 技術開發 될 것이라는 것을 確信하여 맞이 하는 것입니다.

會長 지금 科學技術 行政을 맡아보시는 아주 總本山이신 長官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흐뭇하고 國民 여러분들도 흐뭇할 것입니다.

그런데…… 金東一박사 어떻습니까.

金東一박사께서는 저도 政府에 있습니다마는 民間으로서 한번 과학기술처 장관이라든지 또 행정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이 제실줄로 아는데……

副會長 네, 지금 金會長님께서 또 長官께서 科學技術 振興에 即 말하자면 絕對인 그 必要性에 또는 昨年에 科學技術處 發足日 後에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는 그 施策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金長官께서도 잠깐 言及하셨는데 即 말하자면 남을 뒤 따라가는 것은 쉽겠다. 希望을 가질수 있겠다 하는 것은 어느 程度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客觀的으로 이 問題를 생각해 볼때 말이죠.

長官 네……

副會長 그러면 좌우간 뒤 따라 가야겠는데,

우리가 外國에 比해서 얼마나 뒤 떨어져있느냐, 于先 이것을 한번 생각해볼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요전 東亞日報新聞을 보니까, 그 韓國科學技術研究所라든가……

이 問題에 關해서 結論을 낸것을 綜合해보면 적어도 韓國은 日本에 比해서 40년~80년 가량 뒤떨어져 있는 것이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년 뒤떨어져 있네 하는 것은 觀點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령 내 自身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日本에서 大學을 나온 지 꼭 35년 되었어요.

그런데 그 當時에 내가 卒業함으로써 學生 論文을 쓰던 그 研究室의 環境, 또 大學을 卒業할 때도 그 會社에 就職을 해가지고 研究室에서 研究를 하던 그 環境이 말이죠.

지금 35년이 지난 우리나라 大學의 現實, 우리나라 會社의 研究室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長官 네……

副會長 最小限度 35년, 즉 말하자면 40~50년 程度 떨어져 있다는데에 나는 수긍(首肯)하는 바인데

이것을가지고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 그 結局 科學技術處가 昨年에 생겼고 1년이 지난 오늘날 現實에 비춰서 過去에 내 젊은 時代에, 學生時代에 그 環境이 미치지 못했으니까, 如何든 于先 그 環境을 그만큼 助成해 놓고서 50년 뒤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부터 따라가는 것이니까요, 한 10년이면 따라 갈수 있다. 20년이면 따라 갈수 있다 하고…… 아까 장관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우선 起點이 되지않았어요. 그러면 우선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나. 于先 기점부터 이것을 환원시켜야 되겠는데, 그것은 結局 投資없이 되지를 않는다고 봅니다.

그럼 아까 金長官께서는 今年에 30 億원을 投資했다고 하지만 이것을 常識的으로 말하자면 滿足할수 없는 것이고, 勿論 金長官께서도 滿足할수 없는 것이겠지만 科學技術處 金長官以下 全職員이 豫算을 많이 잘리고 했지만 結局 目的達成이 되지못한게 事實이겠지만 國際線 3%, 國民總生産의 3%가 국제적인 선인데……如何든 于先 이것의 投資를 해야만 할것인데 投資를 하기 爲해서는 于先 豫算에 先審制가 반드시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新聞을 보더라도 豫算에 固定費가 86%, 有動費가 14% 밖에 안되는 것을 가지고 꼭 애로가 있고 時間이 없어 오래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우선 여기에 先審制가 생겨 가지고서 그 다음에 아까 金長官이 말씀한 그 方向으로 効果있게 쓰는데, 여기에서부터 出發點이 되지않나 여쭙어보겠습니다.

會長 마라톤을 하는데 일본 사람이 빨리 달리는 데 우리도 빨리 달려서 日本쫓은 따라가야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副會長 네~ 네!

會長 그러자면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잘 먹이고 옷도 잘 입히고 신도 잘 신겨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金東一박사가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科學技術處 長官님, 한두가지 더 답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長官 네, 네.

豫算이 많을 수록 좋고 投資가 많을수록 좋은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昨年에도 豫算投資를 하는데 여러가지 느꼈음이다마는 이 開發途에 있는 國家로서 할 어려운 問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 問題는 今年에 32억 6천원밖에 없으니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저에게 주어진 課題입니다.

그리고 이제 將次의 目標은 美國이 한 3% 좁은 GNP에, 3%는 研究費에 쓰고 있으니, 將次 長期計劃으로 보아서는 漸次 그 目標을 向해서 우리도 投資를 繼續增加하는 方向으로 움직여야 우리 科學技術이 振興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客觀的 事實입니다.

그러면 長官으로서 現在豫算이 規定된 內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하여 答辯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今年에는 재원은 모자라고 技術的으로 많이 떨어진 形편에 놓여 있으니, 우리가 좀 節約 方法을 잘 講究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先進國家가 하고 있는 것을 아무거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國內 道內地域技術開發을 해야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風土에 맞는 技術, 集約的이며, 될 수 있으면 거리에서 副價 價値가 많이 나는 것을 고르고 可能하면 國內에 存在하는 財源을 最大限으로 活用할 수 있는 方向 또는 基礎的이며 또 과급 效果가 큰 技術分野, 될 수 있으면 外國外貨를 獲得할 수 있는 그런 分野를 갖다가 重點的으로 支援하겠습니다. 그래서 具體的으로 어떤 分野나, 하는 것은 가령 實業이든지, 金屬材料 같은 것, 電子工業이라든지, 農水産加工物, 原子力, 精密工業, 鑛業工業 이런 分野가 되는 것입니다.

會長 에……

지금 長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적은 돈을 가지고 效果를 많이 내시겠다……

이런 것이 아마 科學的이고 近代的인 사고 方式이 아니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적은 豫算 가지고 最大의 效果를 내서 科學技術을 發展시키겠다는 大端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大端히 感謝합니다.

長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科學技術人的 총집합체인 科·技 總聯 같은 데서 어떻게 協助해 주느냐 하는 것이 科學技術振興에 重大한 意義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會長님께서 68년도에는 어떠한 計劃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會長 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에 대해 말씀드리던 過去에는 “技術總協會”라고 했습니다. 또한 團體로서 ‘科學技術振興協會’가 있었는데, 再昨年에 大同團結을 통하여 한 團體로 만들었습니다. 이 團體는 우리나라에 化學學會, 지금 金東一博士가 主管하시지만 此外에 土木學會, 建築學會, 金屬學會 窯業學會等 굉장히 많습니다. 醫學協會까지 加入하여 85個 團體입니다.

그래서 總團結된 이런 團體를 構成을 했습니다만 亦是 事業을 하자니 여러가지 일이 있습니다. 今年度 저희들의 團體 事業으로는 科學技術에 對한 宣傳啓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科學과 技術」雜誌를 냈습니다. 創刊號가 1월에 나왔고 또 科學技術者의 名單이 없으니 우리나라에 科學者와 技術者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기 爲해서 要件에 第1卷을 發行했습니다만 第2卷도 發行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科學技術者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과학기술계 및 全國에 널리 알려 드리려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마다 하지만 全國科學技術者大會를 열어서 거기서 有能한 科學者나 技術者에 賞金도 드리어 격려하고 동시에 功績이나 큰 研究를 한 분들에게는 學國的 表彰을 하고 뒷받침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科學技術會館이 없습니다. 長官께서도 觀心이 많이 있으시고 要件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會館을 今年 中에… 꼭 起工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科學技術者들의 處遇改善은 많이 되었습니다. 研究手當 같은 것은 長官께서도 많은 努力을 해주셔야지요.

科學技術者大會에서의 要望은 研究費라든지 處遇改善을 더 해달라는 要望事項이 있어서 그 方面에 좀 努力을 하겠고 또 아까 長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外國의 科學技術을 導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제 나름의 世界 科學技術 情報를 피차 交換하는 그런 任務도 하겠습니다.

또하나 要件에 말씀하신 “科學技術의 날”을 빨리 決定하면 좋지 않느냐 하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에 對한 基礎資料를 調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事情을 하자니까, 亦是 資金이 必要한데 科學技術處 長官께서도 特別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團體育成에 많은 努力도 해주시고 또 補助도 해주실 줄 믿으며, 우리도 科學技術振興에 最大限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長官님께서도 特別한 觀心을 가지시고 잘좀 해주시기를 付託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副會長님.

副會長 네,

會長 副會長께서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補充해 주셨으면 합니다.

副會長 네, 아까 제가 가장 基本的인 問題를 決局 아무리 效果의으로 利用한다 하더라도 投資自體가 어느程度 國際의 上線에 到達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였는데 좀더 科學技術振興을 先進國家까지 우리가 올리는데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좀... 根本的으로 問題를 생각해보것 같으면 우선 이런 問題는 우리 國民全體가 우리 科學者들이 느끼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科學技術에 振興發展이라는 것이 結局 國防이던 國防, 教育이던 教育 이리 한테 못지않게 重要하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認識을 해주어야 하며 國民全體가 認識을 해야되는 方法도 있고 또 하나는 밑에서 올라가는 方法이 있으며 위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밑에서 올라가는 것하고 이것이 결국 합해가지고 비로소 아까 豫算에 先審制라든가, 가령 國際의인 上線이 投資라는데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多幸히도 우리 大統領께서는 제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말을 했는데 科學技術振興에 對해서 굉장히 理解를 많이 해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나라가 憲法을 革命政府에서 制定할적에 從來 憲法에는 科學이라는 글자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現 政府의 憲法에다 經濟科學 審議會라는 것을 두자고 主張하신분이 우리 大統領閣下인 줄 알고 있고 그 후에 있어서도 昨年에 科學技術處에서 豫算을 要求했는데 그게 아마 10分之1도 通過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困窮을 우리 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幹部一同들이 建議書를 내고 그런 結果 大統領께서 이런 科學技術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겨우 아까 말한 32억이라는 것이 確保되었습니다.

또한 科學技術會館 問題가 나왔지만 昨年에 우리 幹部들이 大統領閣下를 만났을 때 即席에서 3천만 원을 政府에서 해 줄테니 우선 始作하라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런데.....

會長 昨年이 아니라 再昨年이지요.

副會長 네, 再昨年이지요.

그런데 내가 불적에 現實에 있어서 밑으로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밑에서 올라가는 것은 우리 自身들이 啓蒙을 해야 되겠고 위에서 내려오는데..... 다시 말

하면 가령 豫算關係 審議하는데 있어서 各部長官들이 協助해야 되겠고 國會議員들이 協助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對해서 제가 率直히 말씀드리던 解放된지도 25년이 되는데 물론 金長官께서는 外國도 갔다 오셨지만.....

國內 우리 科學者들 所謂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機會가 있을때 마다 主張을 하고 글도 써서 발표 했는데 제 생각은 이것을 아까 急速히 發展시킨다 效果의으로 돈을 쓴다는 오도진도를 쓴다는 問題인데 振興을 빨리 한다는 길은 결국 科學技術者를 政府는 위에서 내려오는 中間層에 科學技術者를 데려다 重要的 地位에다 起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학기술자가 생겨 金長官이 科學技術處長官이 되므로써 相當히 進展된것과 마찬가지로 科學技術者만 가지고 解決되는 問題가 아니니까. 말하자면 外國에 있어서도 相當히 重要的한 "포지션"들은 科學技術者들을 많이 가지게 하고 民間으로 말하면 社長이라든지, 重役級에 科學技術者들이 있어서 相當히 效果를 보고 있는데 結局 이것이 實現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如何튼 우리 科學技術者라고 해가지고서 自己專門으로 研究所를 장악해서 일할분은 일하고 또 한편으로는 國會라는것도 振興에 對하여 國會가 協助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國會도 우리 科學技術者들이 많이 進出을 하고 朴大統領閣下와 政府機關에서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重要的機關에 科學技術者를 起用해야 하는 것이 基本的인 問題가 되지 않을까.....합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읍니다마는 平素에 所感を 忌憚없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會長 그런데 좀 具體的으로 進行을 해 볼까 하는데 長官님.....

韓國 科學技術研究所가 착착 進行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完成이 되어가지고 언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른데서는 發表를 하신줄로 아는데 簡單히 다시 말씀을 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長官 에.....우리 科學技術研究所는 우리 朴大統領



領 閣下하고 존슨大統領간에 協約으로써 始作이 된 것인데 이것은 相當히 重要한 意義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會長 豫算도 大部分 거기로 가지요.

長官 네-네,

今年度만해도 우리 政府에서 14억을 내기로 되었습니다. 그중 基金이 5억이 되고 建設費가 9억원이 되어서 A I D로 들어오는 研究機材가 即時 들어오면은 今年 11月말에 完功이 됩니다. 그래서 69年初부터 本格的인 研究活動을 始作할 작정입니다.

會長 에……

長官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會長 무슨 分野가 제일 먼저 始作됩니다?

長官 國內産業技術開發에 基本役割을 하는 分野를 우선 먼저 開拓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金屬材料라든지 農水産 加工같은 技術이 모자라서 안되는 分野를 速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會長 그렇게 設備가 된다 하더라도 科學者나 技術者가 確保가 잘 됩니까?

長官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重要한 意義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美國같은 데에 수천명이라는 技術者를 養成해 놓았습니다.

會長 네, 네.

長官 그런데 이분들이 故國에 돌아오면 일을 하는데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좋고 대우가 좋아야 할 텐데……

會長 報酬가 적다는 게 아니여요.

長官 報酬는 지금 國內보다도 몇 배 더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會長 네……

長官 그래서 外國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여기서 좀 좋은 環境을 주었으니 外國에서 成果를 낸 것 같이 좀-, 좋은 成果를 내달라고,……

會長 몇 명이나 왔습니까?

長官 지금 19명 왔습니다.

繼續 外國에 있는 技術者를 유도하는데 努力을 하고, 이리므로 그 科學技術者들이 우리나라 産業技術開發에 基本役割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는 短期計劃입니다.

高度의 自律性과 좋은 待遇를 주어서 우리가 成果를 낼려고 하는 것을 成功시켜야 되는 그런 段階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研究所와 달라서 直接 産業化研究를 갖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民間에서 이런 課題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면은 그것도 거기에서……

會長 네, 네.

長官 그게 原則이 됩니다.

in the strate contract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東洋에서는 아마 規模로서는 第一 크고 어느 質로서는 世界에서 훌륭한 學者들을 모셔다 놓고 待遇도 좋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아까 金東一 박사께서 말씀한 것처럼 研究가 좋은 분에 의해서 좀 積極的으로 研究할 수 있는 環境, 돈도 많이 導入하는 short case 입니다.

會長 네.

이런 것을 全般的으로 10개를 만들고 20개가 생길 적에 우리 大韓民國은 世界的으로 科學 國家가 되는 것입니다.

會長 싸이룻트 프라뜨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싸이룻트 프라뜨는 무엇으로 먼저 만들니까?

長官 네, 金屬關係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會長 우리나라에는 金屬이 第一 뒤떨어져 있지요?

長官 네, 그렇습니다.

會長 金東一박사께서 모든 分野에 科學者나 技術者가 參與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最近에 보니까 그런 方面에 建築을 많이 하고 있고 地方이라든지 各 産業機關에 研究所가 있어 가지고 相當히 우리 科學者나 技術者가 熱心으로 研究를 하고 있습니다.

會長 그런데 時間도 다되고……

副會長 제가 한마디만 더……

會長 그럼……

副會長 아까 제가 말한 것과 같이 研究하는 분은 研究하고 또 可能한 사람은 國會까지도 進出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科學技術者들이 國會에 進出한다는 것은 醫師 몇 분이던 모르지만… 到底히 可望없는 일이기 때문에 于先 제가 한가지 提案하는 것은 國會안에 科學技術 分科委員會를 두었던 좋겠습니다.

가령 教育에 關해서는 文教分科委員會가 있는데 科學技術 分科는 지금 없습니다. 于先 科學技術者가 進出한다는 것은 將次 있을지 모르지만 우선 當장이라도 國會에 科學技術을 <P. 68 면으로>